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자료			
보도	2017. 9. 8.(금) 조간	배포	2017. 9. 6.(수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실	김영진 실장(3145-6700), 김봉한 팀장(3145-6710) 오상완 팀장(3145-6711)		

## 제 목: 금융꿀팁 200선 - ⑯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 - 동시에 2016.9.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예순다섯번째 금융꿀팁으로, ”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“를 안내하여 드림

### <별 첨> 금융꿀팁 200선 - ⑯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

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'금융관행 개혁포털'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'국민 참여방'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제 목	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(사례 1)</b> 40세 직장인 김OO씨는 5년전에 직장 동료 甲과 같은 증권사에서 같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였다. 최근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본인 펀드의 수익률이 甲보다 3.5%나 낮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. 알고보니 클래스*에 따른 비용차이 때문이라고 한다. 본인은 창구에서 C 클래스를 가입하였고, 동료는 수수료·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A-e 클래스에 가입했는데 5년간 누적된 비용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음을 알고 가입 시 미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.</li> </ul> <p>* 클래스란 동일한 펀드 내에서 판매수수료의 부과시점, 가입경로 등에 따라 구분되는 펀드의 세부종류를 말하며, 이러한 클래스에 따라 기준가격이나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'불임-펀드클래스별 수수료·보수 특징' 참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(사례 2)</b> 펀드투자 베테랑인 가정주부 최OO씨는 최근 신문에서 성과보수 펀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었다. 이런 펀드라면 자산운용사가 더 책임감 있게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, 비용구조가 복잡하여 성과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, 어떤 기준으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막막하였다.</li> <li>■ <b>(사례 3)</b> 펀드로 미래의 재산증식을 설계하고 싶어 하는 사회초년생 서OO씨는 1년 전 중남미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 가입하였다. 가입당시 펀드정보 포탈에서 총비용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저렴(1.2%)한 펀드를 선택하였다. 그런데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 보니 실제로는 1.9%의 보수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. 판매사에 확인해 보고 재간접펀드는 총보수·비용에 더하여 펀드가 편입한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보수 등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.</li> </ul>

☞ 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 등 비용도 중요하므로 아래 7가지 비용절감 노하우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

###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

- ①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
- ②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
- ③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수수료 비교
- ④ 온라인 가입시 판매보수 저렴
- ⑤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의무에 유의
- ⑥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체크
- ⑦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

#### ①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

꿀 팁

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(클래스)별로 판매수수료·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,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펀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.

장기투자(예: 3년 이상) 목적이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합니다. A클래스는 가입시 1% 내외의 1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또한 C1, C2 등으로 표시되는 CDSC\*클래스는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, 초기 비용부담이 커서 A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 비쌀 수도 있으므로 보수 및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.

\*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(체감식판매보수)

클래스간 비용차이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**투자설명서에 기재된 '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클래스별 비용부담 예시'**를 참고하여 보다 쉽게 본인에게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## ②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

단기투자(예: 1년 이내) 목적이라면 C클래스가 A클래스에 비해 유리합니다. **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** 한편, 단기투자자는 가입 초기의 판매보수율이 높은 **CDSC 클래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**

## ③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비교

동일한 펀드 클래스라면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판매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. 그러나, 투자자가 직접 지불하는 **판매수수료는 일정한 범위(통상 1% 이내) 내에서 판매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** 따라서 동일한 펀드라도 **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개별 펀드의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정보는 **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** (<http://dis.kofia.or.kr/>)에서 **비교·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
## ④ 온라인 가입시 판매보수 저렴

가입할 펀드를 정했다면 창구에서는 클린클래스를,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 두 클래스는 창구판매 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.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명에 **알파벳 'E'나 'S'**를 포함하고 있으며, 클린클래스는 '**G**'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판매창구에서 **'투자권유**

**불원서'를 작성하는 투자자는 G클래스에 가입하여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**

종전에는 온라인클래스가 없는 펀드들이 많았으나 '17년 하반기부터 설정되는 모든 증권형 펀드에 **온라인 클래스가 의무화**되므로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◆ 스스로 가입할 펀드를 결정할 때 유용한 사이트

금융소비자보호 포털 “파인(FINE)”(<http://fine.fss.or.kr/fine/index.jsp>)을 방문하여 “금융상품 → 펀드다모아”를 클릭하면 펀드수익률을 중심으로 원하는 펀드를 쉽고 간편하게 비교하여 검색할 수 있고, 펀드 보수 등이 기재된 투자설명서, 펀드 구성내역, 운용인력정보 등 상세정보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
### ⑤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의무에 유의

펀드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펀드를 **성과연동 운용보수 펀드**(통칭 성과보수 펀드)라고 합니다. 이러한 펀드는 명칭에 ‘성과보수’가 명기되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성과보수 적용 펀드는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**유사한 정률보수 펀드에 비해 약 50%정도 저렴한 기본보수(운용보수)**만 내면 되지만,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정률보수 펀드보다 **더 높은 비용부담**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
한편, 성과보수 펀드는 투자금액의 **일부만 환매하는 것은 안되고 전액환매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.** 이에 더해 **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되고 판매보수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된다**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성과보수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「**환매시 기준가격에 따른 성과보수 부담 사례**」가 기재되어 있으므로,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목표수익률, 투자기간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## **⑥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체크**

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**가입후 1~3개월**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, 펀드에 따라서는 **10년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.** 펀드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**부과기간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봐야 합니다.**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한편 환매수수료는 **이익금 기준으로** 산정되는 펀드가 있고, **전체 환매금액 기준으로** 산정되는 펀드도 있습니다.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산정한다면 실제는 **더 큰 환매수수료에 노출될 수** 있으므로, 투자전에 **환매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.**

## **⑦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**

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**재간접펀드**는 일반펀드와 달리 **추가적인 비용부담**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즉, 주식·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의 투자비용은 총보수·비용(판매비용 + 운용비용 + 수탁·사무관리보수 + 기타비용)으로 결정되지만 **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됩니다.**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**합성 총보수·비용**으로 비교해야 합니다. 합성 총보수·비용은 **투자설명서의 '보수 및 수수료'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
\* 클래스 명칭 표기는 편드마다 차이(예 : A-e, AE, Ae 등)가 있을 수 있으며, 투자 설명서상 각 클래스별 가입자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